

## 하나의 效果的인 自然保護 運動

李 鎔德 ( 國立公園協會總務部長 )

우리나라의 産業經濟가 高度로 發展 함에 따라 親知등의 會食 또는 여러 企業人들은 休日을 利用 해서 社員들의 士氣昂揚을 위하여 野遊會나 慰安會다 해서 都塵을 벗어나 近郊 또는 名勝地를 찾아서 놀이를 하는 例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行事는 國民의 情緒生活과 保健向上을 위해 매우 多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지난 5月 28日 日曜日에 서울近郊로 登山한 일이 있다. 溪谷에서 三三五五 또는 20 ~ 30名 式의 數十雙들이 놀이를 하고있는 것을 目擊하였다. 그러나 놀고간 뒷자리를 보면 實로 不愉快할 뿐더러 그들이 버리고간 空瓶·空箱子·비니루봉지등이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어 目不忍見의 狀態였다. 그러나 「自然을 保護하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다」 「休紙는 休紙桶에 버리자」 『○○自然保護會』 『○○株式會社』라는 프랑카드와 쓰레기桶등이 入口와 道路邊에 設置 되고 있어 自然保護運動이 汎國民的으로 展開 되고 있어 그 機關과 會社의 誠意에 對하여 마음속으로 大端히 感謝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좀 아쉬운것은 그 設置를 더좀 깊숙한 곳 까지 즉 사람들이 步行 또는 놀고 있는 곳 까지 設置의 範圍를 擴大해서 버리기 쉬운곳에 했으면 한다. (나는 나의 空包紙, 空瓶을 가지고 오다가 入口의 쓰레기桶에 버렸지만) 入口나 大道路邊에는 그런대로 쓰레기등이 없어 매우 깨끗하였다. 그러나 桶設置가 없는 깊숙한 곳에는 如前히 休紙, 空瓶, 깡통, 비니루봉지등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實效를 거둘 수 있는 積極的인 方法이 될까해서 다음과 같은 規制를 關係當局에 提言 하고자 한다.

즉 모든 製造業者 (食料品, 飲料水, 드링크劑, 菓子類등) 들에게 對하여서는 自己會社 製品名이 表示되어 있는 모든 製品에 對하여서도 버린 製品의 空包裝紙, 空瓶, 비니루봉지등을 그 製造業者로 하여금 收去의 義務化를 法的으로 規制를 하였으면 한다. 그 方法은 關係協會 또는 地域別 担当區域配定등으로서 各自가 自發的으로 1名式의 收去人을 配定하여 休日 또는 그 翌日에 收去하여 버리면 (日當制) 된다. 그 收去人들에 對해서는 啓蒙的인 役割 (어깨띠表示)를 並行하면 無意識中에 버리는 사람들도 무언가 느끼는 感覺이 自發的으로 일어나게 되어 1年 또는 2年後면 버리는 惡習도 漸次 是正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方法이 하루 속히 成事되기를 期待되며 精神面과 環境淨化로 明朗한 社會가 이루어 질 것이며 汎國民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自然保護運動의 中樞의 對象地가 되고 있는 公園地域 등 自然의 景觀地는 人間의 行樂地가 아님을 銘心하고 이를 保護해서 人間의 休養地, 情緒涵養地, 精神修養道場으로 利用하고 自然에 親熟하여 祖上으로부터 이어받은 그대로를 子孫에게 傳承하여야 할 것이다.

때마침 7月 1日부터 施行되는 環境保全法도 大衆汚染防止 騒音防止, 污水防止 등 人間生活의 環境을 保全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自然保護와 國土保全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環境保全法이 잘 遵守되므로서 더욱 自然保護運動에 能率的이고도 効率的인 成果를 期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適正時期에 맞추어 創案된 바람직한 조치를 至大한 關心과 함께 歡迎하는 바이다.